

**IPUS****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보도일: 2013년 8월 9일

▷ 자료배포: <http://tongil.snu.ac.kr>▷ 문의: 02) 880-4052~4, tongil@snu.ac.kr

▷ 연구책임: 박명규 원장

▷ 보도자료작성: 송영훈 선임연구원

<2013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북한인식, 통일의식, 대북정책 등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조사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2013년 통일의식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pm 2.8\%$, 신뢰수준은 95%이다. 아래 내용은 많은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요약,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이다.

■ 박근혜 정부 및 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

-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 76.0%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 52.3% (2012년에는 34.3%).

*** (설명) 신뢰프로세스를 내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제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개성공단과 남북협상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원칙견지와 의연한 태도에 대한 지지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데 따른 반사이익 효과 때문으로 보임.

■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작년보다 상승하였음.

- ‘약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에 50.4%가 찬성 (2012년엔 45.7%가 찬성).

*** (설명) 개성공단의 폐쇄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재개를 위해 우리정부가 좀더 대승적인 접근을 하기를 바라는 의식이 크게 증대한

것으로 보임. 국민이 절반 이상이 개성공단의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됨.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 ☐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대상인가? 협력대상 40.4% (2012년 50.5%), 경계대상 21.2% (2012년 21.3%), 적대대상 16.4% (10.9%).
- ☐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64.3% (2012년 53.2%).
- ☐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 동의한다 12.9% (2012년 15.1%), 동의하지 않는다 57.1% (2012년 50.9%).
- ☐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이다 56.9% (2012년 47.3%).
- ☐ 특히 20대 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남.
 - 20대는 경계대상(23.2%)과 적대대상(20.0%)을 합하여 부정적 인식이 43.2%를 차지한 반면, 30대 35.6%, 40대는 35.1%, 50대이상은 37.3%로 낮음. 특히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20대에서 20.0%로 가장 높음 (30대 (17.1%), 40대(15.1%), 50대이상(14.6%)).

*** (설명) 2013년 들어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대남 및 대미 공격적 언사,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 등 잇단 도발적 행위가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통일에 대한 관심 감소/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의 변화

- ☐ ‘통일이 필요하다’ 54% (2012년 59.1%).
-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 48.9% (2012년 51.6%).
-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40.3% (2012년 45.9%), ‘전쟁방지를 위해’ 30.8% (2012년 25.3%)

*** (설명)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감소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과 더불어 전반적인 안보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유지를 더 시급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동시에 전쟁방지와 평화형성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커지고 있음도 유의해야 할 부분임.

■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

- ☐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26.5% (2012년 12.5%) > 북한 개방 및 인권신장 25.2% (2012년 16.9%) >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17.4% (2012년 46.1%) > 평화협정체결 17.2% (2012년 12.7%) >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준비 13.6% (11.8%).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찬성 52.3%, 입장유보 27.8%, 반대 19.8%.

*** (설명) 기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핵무기 보유여론은 67~70%를 유지했으나, 찬성-반대의 양분법이 아닌 ‘입장유보’층을 고려한 경우에는 핵무기 보유 찬성여론은 그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남.

■ 중국 국가이미지의 긍정적 변화

- 중국의 국가이미지: 협력대상 28.5% (2012년 22.4%), 경쟁대상 43.9% (2012년 36.9%), 경계대상 24.5% (2012년 35.3%), 적대대상 3.2% (2012년 5.4%).
-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이 책임이 있다 58.3% (2012년 60.6%)
- 중국을 가장 친근하게 느낀다 7.3% (2012년 5.8%)
-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이다 21.3% (2012년 30.5%).

*** (설명) 천안함 사건 이후 급증했던 부정적 중국 국가이미지는 올해 크게 개선되었음.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상승한 이유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여준 국제공조의 모습과 최근 6월 27~30일까지 박대통령의 중국방문 성과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보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임.

○ 2013년 통일외식조사의 종합적 분석 결과는 9월 26일 (목) 오후 1시 서울대학교 호암교 수회관에서 발표될 예정임.

끝.